

위의 세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죽음을 인식 가능하다고 보는 (가), (다)와 인식 불가능하다고 보는 (나)로 나뉘어 상이한 관점을 보인다.

우선, 제시문 (가)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가)는 죽음을 인식하고 애도하는 등 사후적 요소를 고려하는 태도는 타 생명체들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수성임을 말하며 죽음을 인식 가능한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시문 (다) 또한 죽음의 인식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다)에서 사람들은 부패와 같은 사후의 부정적 상황을 우려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함에 따라 수반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제시문과는 상반되게, 제시문 (나)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에서 관찰 대상인 고릴라는 동족의 죽은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체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등 본래의 상태와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 또한, 죽은 고릴라에게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죽음'이라는 상태의 존재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른 비교 기준과 더불어, 죽음을 인식 가능하다고 보았던 (가)와 (다)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인간됨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칭하며 죽음을 인식함에 따라 인간만의 특수성이 나타난다고 강조하는 것에 따라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제시문 (다)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는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면서 죽음의 부정적 결과를 예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공포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